

학생 2만8354명 중 4.6% “도박 경험”

도교육청, 중·고교생 전체 대상 도박 실태 전수조사

도박 접촉 경로로 ‘지인 소개’가 53.9%로 가장 많아

도박 장소로는 ‘본인 집·PC방 등 학교외 장소’ 35.7%

학생 대상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청소년들의 도박이 주로 본인의 집에서 이뤄지고 있어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중·고등학교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학생 도박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1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효성을 활용해 전수조사를 진행, 도내 중·고교생 9만6,318명 가운데 2만 8,354명(29.4%)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학생들이 가정 및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사 항목은 도박경험과 예방 문항 등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 이중 조사 결과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이 4.6%(1,298명)로 집계됐다.

중·고교생별로는 각각 4.6%, 4.5%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별로는 전주·군산·익산지역(4.5%)보다 11개 시군(4.7%)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는 남학생(6.8%)이 여학생

(2.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고, 특성화고(6.4%)가 일반고(4.1%)에 비해 도박 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박 접촉 경로는 지인의 소개(53.9%)가 가장 많았으며, 주로 사이버 환경(온라인 52.7%, 오프라인 6.5%)의 도박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경험 시간은 주말, 공휴일 등 하교 이후의 시간(30.1%)이, 장소로는 본인 집, PC방 등 학교 외 장소(35.7%)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자금은 용돈이나 상품권 등(43.7%)을 사용했고, 결제 방식으로는 주로 현금결제(48.7%)였다. 도박 이유는 금전적 이득(32.5%)과 재미 및 호기심(27.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의 3.1%가 도박 중단을 위해 상담·치료를 받았으며, 도박으로 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모 또는 가족

(38.7%), 도박문제 상담기관(23.8%)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학생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강화, 도박 징후 조기 파악,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적극 지원을, 이어 학부모 대상으로는 도박 예방교육 강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정기 안내를, 끝으로 교원 대상으로는 도박 징후 학생 발견 시 조기 개입 및 대처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확대를 들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조사는 중·고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도교육청 최초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박문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올 교육가족 공모 수상작 발표

동시분야 대상 성승초 이은솔 등 총 78편... 오늘 시상식

전북도교육청이 2023년 교육가족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함께 그리는 따뜻한 미래’를 주제로 동시와 송품(학생·교직원 분야)에서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 동시분야 1,027편, 송품 학생분야 37편, 교직원분야 41편 등 총 1,105편이 접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1~2차 서면심사 등을 거쳐 각 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78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먼저 동시분야 수상자는 △대상에 ‘개구리 학교’ 이은솔(성승초 1), △최우수상에 ‘전국학교 자랑동시’ 오효정(창복초 2), ‘우리반은 오벤저스’ 이지효(전주여울초 6), ‘우리학교로 놀러와’ 이태준(장계초 5) 등 총 30편이다.

이어 송품 학생분야는 △대상에 ‘햇살같은 우리 박현생’ 최지영(화산중 1), △최우수상에 ‘안녕 나 안녕 너’ 주성길(회현중 3), ‘함께 만드는 따뜻한 학교’ 문하나 외 1명(영선중 1, 팀), ‘와치와 함께라면’ 박하진 외 1명(용복중 3, 팀) 등 총 24편이다.

송품 교직원분야에서는 △대상에 ‘우리학교 마음 온도 높이기’ 김선미 외 3명(군산신흥초 병설유치원) △최우수상에 ‘친구와 함께 학교탐험’ 박찬배(장승초), ‘미래는 우리에게 맡겨’ 이소정(신림초), ‘함께하니 더 행복한 학교’ 문신실(대야초) 등 총 24편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대상은 50만원, 최우수상은 30만원, 우수상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성하 대변인은 “이번 교육가족 공모전은 전북교육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가족 간의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응모해 준 모든 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육주체들이 함께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자 명단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2일 열린다. /장은성 기자



11일 전북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사)한국시니어클럽 전북지회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홍소연 지회장이 협약 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 힘 모은다

도교육청, 한국시니어클럽 전북지회와 협약 체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정책 수립 등이 주요 내용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1일 5층 회의실에서 (사)한국시니어클럽 전북지회(지회장 홍소연)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어린이 교통안전 분야 시민단체와 교육청이 상호 신뢰와 협

력을 바탕으로 스쿨존에서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주력, 어린이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등하굣길 학교안전지도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 등이다.

/장은성 기자

임실 RIS 사업 본격 가동... 전주대, 지역혁신위원회 위촉식

김정흠 임실군의원 등 총 9명

지정환공동체학교 공유대학화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8일 임실치즈마을에서 지역혁신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임실군 RIS사업인 지정환공동체학교의 리빙랩 기반 공유대학 플랫폼 운영 및 사업화 실행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의 방향을 논의한 후, 세부 사업 승인 및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지역혁신위원으로 임실군 최낙현 과장, 임실군의회 김정흠 군의원, (사)임실군마을가꾸기협의회 박기인 사무국장, 임실치즈마을운영위 이진하 위원장,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정석근 연구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수영 본부장, (주)우개컴퍼니 원민 대표, 또한 나대손학동조합 최명희 이사장과 전주대 산학협력단 한동승 교수 등 9명이 위촉됐다.

김정흠 군의원은 “치즈마을이 다시 도약하는 도전의 한 꼭지로 지정환 신부의 철학과 정신이 발휘되고, 임실이 희망 있는 모습으로 실현되도록 적극



전주대학교는 지난 8일 임실치즈마을에서 지역혁신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실군 최낙현 과장은 “임실치즈마을의 정체성이 RIS 사업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주대 산학협력단 한동승 교수는 전주대와 임실치즈마을이 한국의 수마허 대학, 토트네스 전환마을이 되길 기대한다며, 참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전주대와 임실군은 앞으로 지정환공동체학교를 공유대학화해 로컬블랜딩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친환경적인 마을 캠퍼스를 조성해 에너지 자립, 자원순환, 농촌 돌봄을 위한 실천적인 리빙랩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로컬블랜딩 창출로 경제공동체로의 도약과 청년 및 귀농 등 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2024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설명회

전북도교육청은 11일 창조내내 시청 각실에서 2024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인 초등 1~2학년부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오전에는 초등교감 420여 명을, 오후에는 교육과정 업무담당 교사 4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방안과 2024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초학력, 교육결손 해소 사업의 주요 정책 방향 및 학교 지원사항 등이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전주교대

3학년 수업실습 진행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11월 13일~12월 8일 4주 동안 전주교대학교 3학년 학생 54명이 교생 수업실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업실습은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 수업 경험을 통해 초등교사로서의 창의적인 수업 기술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세 번째 실습을 한 54명의 교생들은 군산부설초의 교육 방침을 준수하며 인증수업을 비롯해 다양한 교과의 수업시연을 통해 예비교사의 역할을 했다. 교생들은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각 학급 학생들과 함께하며, 담임교사의 지도에 따라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고 수업 시연을 했다. /장은성 기자

“새로운 것 알게 됐어요”

도교육청, 284명 대상 12월 학생 해외문화체험

4~8일 필리핀 캄보디아, 11~15일 베트남서 진행

도내 초·중·고교 학생 284명이 12월 학생 해외 문화체험을 떠났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해외연수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달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베트남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생 해외 문화체험은 각국의 역사교육, 문화교육, 안전교육 등의 사전교육을 마친 뒤 초·중·고교 학생 187명이 지난 4~8일까지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해외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먼저, 필리핀 연수단은 필리핀의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에 더해 세부 세종학당 학생들과 필리핀 최대 축제인 시놀록 축제 의상을 만들고 음악에 맞춰 축제 퍼레이드를 경험한 후, 울랑고섬을 방문해 현지 학생들에게 자신의 추억이 담긴 물품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를 펼쳤다. 또 필리핀 세부 송세원 총영사로부터 진로특강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캄보디아 연수단은 지역의 문화 유산을 돌아보며 캄보디아의 역사·문화를 학습했다. 킬링필드, 뿌이슬랭에서 ‘감정 나누기’라는 주제로 모둠활동을 통해 평화와 인권에 중요

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 학교(Bak Touk High School)를 찾아 우리 학생들이 소장하고 있던 영어책들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은 일일 체험 일정을 마치면 모뎀별로 모여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다음날 체험활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등 자연스럽게 모뎀별 유대감과 우정을 쌓았다. 또한 개인별 온라인 책자를 만들면서 자신만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해외 문화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필리핀·캄보디아의 역사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현지 학생들을 만나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11~15일까지 도내 초·중·고교 학생 97명이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해외 문화체험에 나선다.

이를 마치고 7일에 진행한 일본, 싱가포르 해외 문화체험을 포함해 총 483명의 학생들이 해외 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게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오는 28일 전주대 수퍼스타홀에서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진행된 학생 해외 문화체험 성과보고회를 개최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성과 보고회

도내 15개 센터 참여

전북도교육청은 11일 도내 15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업실습을 비롯해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운영성과 보고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체 운영 보고와 주요 사업별 운영 보고로 진행됐다.

먼저, 김제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인권보호사업을 소개하고, 익산센터에서는 장애학생 미래교육과 관련한 환경구축 및 장애학생 정보화·e-스포츠대회 운영 상황을 보고

했다. 도교육청은 장애학생 e페스티벌과 진로드림 페스티벌 수상 성과를 발표했다.

또 장애특성별 거점센터 운영사례로 군산센터의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례, 익산 행동중재 거점센터의 행동중재 지원사업 운영사례, 전주 청각장애 거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기초 수어 교육 운영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임대선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지난 1년 동안 각 센터에서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중심축인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